예산회계와 재무회계는 상호보완 및 견제관계

조 태 형
공인회계사

1.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정의

예산회계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예산회계는 회계거래를 수입과 지출로 분리하여 현금거래를 기준으로 단식부기방법에 따라 기록 관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그러나 재무회계는 예산회계와는 다르게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고 통제하는 목적이 아닌 일정시점의 재정상태와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을 말한다. 예산회계가 현금거래 기준에 따라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것과는 다르게 재무회계는 거래인식 기준을 발생주의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복식부기방법으로 증가와 감소를 기록 관리한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비교하여 양회계제도의 정의를 돕고자 한다. 양회계제도는 회계목적, 부기방법, 회계기준, 결산서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회계제도에서 얻어지는 결산결과 현금잔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결산된다. 따라서 양회계제도는 상호견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회계제도와 재무회계제도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회계구분	회계목적	부기방법	회계기준	결산서류
예산회계	자금수지관리 및 통제	단식부기	현금주의	예산대집행결산
재무회계	재정상태, 경영성과 산출	복식부기	발생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상호보완적 관계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는 회계목적과 기록방법뿐 아니라 회계기준 및 결산서류가 각각 다르다. 때문에 예산회계에서 만들지 못하는 재무정보인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는 재무회계를 통하여 얻어야 하고 재무회계에서 얻지 못하는 수입과 지출 예산대결산 재무정보는 예산회계에서 얻어야 한다. 때문에 양회계제도는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영리기업은 예산회계제도와 재무회계제도를 병용하지 않고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회계만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보가 취약하다. 때문에 현금수지정보를 얻기 위하여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현금의 흐름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현금흐름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같이 분개나 거래기록법칙에 따라서 작성하지 못하며 전기말 대차대조표와 당기말 대차대조표를 비교분석해 작성하고 있다. 때문에 현금흐름표의 작성이 용이하지 못할뿐더러 작성된 현금흐름표는 재무정보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흐름표는 전산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여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회계제도와 재무회계제도를 병행하는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에서는 현금기준에 따라 수입과 지출로 구분 관리하는 예산회계편에서 얻어지는 예산결산의 자금수입과 지출이 현금의 흐름정보이므로 재무회계에서 만들어진 대차대조표를 분석하여 작성하는 현금흐름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상호견제적 관계

예산회계나 재무회계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는 현금에 관한 정보이다. 이 양회계제도에서 현금잔액은 일치해야 한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는 회계목적 회계방법, 결산서류가 서로 다르나 현금(자금) 잔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때문에 양회계제도의 현금잔액은 서로 견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예산회계의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액과 재무회계의 대차대조표상의 현금잔액은 반드시 일치하게 결산되어야 한다. 때문에 현금잔액은 양회계제도에서 반듯이 일치되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를 찾아야만 한다.

4. 맺음말

외화부채상환을 위한 외화자산의 보유액이 외화부채액보다 부족하여 IMF로부터 긴급

외화지원을 받게되는 불상사가 얼마전에 발생하였다.

정부의 회계제도가 예산회계제도인 단식부기제도에 따라서 재정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수시로 외화자산 보유액과 외화부채에 관한 재무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외화자산과 외화채무에 관한 재무정보를 만들 수 있는 회계제도는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제도로 인식되어 IMF 사태 이후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가의 재정은 반드시 조세로 조달되는 자금으로만 관리되지 않으며, 채권 · 채무 · 자산 · 부채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복잡한 재무구조로 되어있다. 때문에 예산회계방법인 단식부기만으로서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곤란하므로 재무회계방법인 복식부기 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하여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가 보완적으로 보다 많은 재무정보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재정 토막상식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에서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때는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해 보고하며 차기에 실제 대손이 발생할 때는 대손채권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되 상계 후의 차액은 걸산시 특별이익에 환입시킨다. 이 계정의 목적은 기간손이익계산의 적정을 기하고 보유채권의 평가를 적정히 하며 장래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대손에 대비, 기업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